



내부지게 일하는!  
**현장중심  
민주노총**

# 3 이미선

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서울지부장  
현) 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노동자대표  
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안전위원장  
전)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

# 3 뚝심있는 현장투쟁 승리하는 민주노총 이미선

20대 청계피복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우리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가 저에게로 그리고,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했습니다.

40대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저임금과 차별의 굴레, 우리가 바꿔내지 못한 불안전한  
일터에 어린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목격하며 괴로웠습니다.

전태일 선배님의 ‘나는 돌아가야 한다. 어린 여공들의  
곁으로...’라는 글귀가 가슴에 다시 박혀 노동조합 현장  
간부에서 지부장, 부위원장으로 몸 사리지 않고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 ■ 비정규직 공동투쟁 강화

-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책위 재정립
- 차별해소 예산 쟁취 투쟁

##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제·개정

- 될 때까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근기법 개정 투쟁

## ■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투쟁
-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산안법 투쟁
- 전 조직적 노동안전보건사업 강화

## ■ 최저임금 투쟁승리를 위한 새전략 수립

